

LÉVY GORVY

레비고비 런던, 프란체스코 클레멘테의 파스텔 작품 회고전 개최

프란체스코 클레멘테: 파스텔
Francesco Clemente: Pastels

2019년 12월 12일 - 2020년 2월 15일

레비고비 런던
22 올드 본드 스트리트
런던 W1S 4PY

오프닝 리셉션: 12월 11일 목요일 6-8 PM

런던—레비고비 런던은 다양한 미학적, 문화적, 정신적 전통을 창의적으로 접목시킨 프란체스코 클레멘테의 예술세계를 소개하는 <프란체스코 클레멘테: 파스텔>展을 개최한다. 건축가이자 작가의 오랜 친구인 빌 카츠(Bill Katz)가 기획한 이번 전시는 주제별로 구성되며 정신적, 육체적 표현을 섬세하게 그린 그의 파스텔 작품을 집중 조명한다. 전시는 2019년 12월 12일부터 2020년 2월 15일까지 메이페어에 위치한 레비고비 런던에서 이어지며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다수의 작품을 포함해 지난 40년에 걸친 작가의 파스텔 작품을 선보인다.



클레멘테는 다양한 물리적, 추상적 대상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오랫동안 파스텔 매체를 탐구해 왔다. 파스텔은 밀도 있는



색감과 명쾌한 선, 즉각적인 필치 표현에 있어 클레멘테의 강렬한 드로잉에 완벽하게 적합한 매체라 할 수 있다. 지난 40년간 작가는 매체를 통해 삶과 죽음의 끝없는 순환을 상기시키는 과감하고 다형태적인 성(性)적 이미지를 그려왔다. 인간 본성을 비유적이고 신화적인 표현으로 시각화하며 그의 작품은 개별 존재 간의 간극을 좁히고 상호 문화적 차원을 드러내고자 했다.

클레멘테는 고정된 정체성을 거부하고 자신을 유동적이고 프로테우스적인 (protean) 인 존재로 표현하곤 했다. 색다른 인체 변형적 표현을 시도한 <배꼽 Navel>(1981)과 <코 Naso>(1983)부터 우주적이면서 동물적인 이미지의 <흰색, 빨간색, 검은색의 자화상 Self-Portrait in White, Red and Black>(2008)까지 그의 자화상들은 지속적인 심리적, 육체적, 정신적 진화 과정을 반영함으로써 작가의 육체적 묘사에 그치지 않고 창작을 통해 끊임없이 의미를 탐색하는 그의 여정을 함께 담아냈다.

클레멘테의 <뉴욕 뮤즈 New York Muses>(1993) 연작은 여성의 두상을 클로즈업으로 묘사하며, 그들의 강렬한 시선과 존재감은 신화에 등장하는 창작의 여신을 연상시킨다. 이와 더불어 앨런 긴즈버그(Allen Ginsberg), 마이클 맥클루어(Michael McClure)의 초상화는 작가와 시인들과의 친밀한 우정과 협력관계를 드러내며, 작품들은 주인공의 풍부한 상상력뿐만 아니라 그들과 작가가 나누었던 진정한 우정과 예술적 자극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시에 대한 작가의 깊은 애착은 장 주네(Jean Genet)의 언어와 이미지로부터 영감을 받은 최근작 <사랑의 노래 Un Chant d'Amour> 시리즈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레비고비는 이번 전시에 맞춰 카를로스 바수알도(Carlos Basualdo)와 레이먼드 포이(Raymond Foye)의 에세이가 수록된 도록을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도록에는 작가가 선정한 그레고리 코르소(Gregory Corso), 로버트 크릴리(Robert Creely), 앨런 긴즈버그(Allen Ginsberg), 카비르(Kabir), 빈센트 카츠(Vincent Katz), 옥타비오 파스(Octavio Paz), 르네 리카르드(Rene Ricard), 패티 스미스(Patti Smith), 앤 월드먼(Anne Waldman), 존 위너스(John Wieners) 등의 시가 '플레이리스트' 구성으로 수록된다. 문화 전반에 대한 레비고비의 열정과 지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도록은 시각예술과 시의 조화를 통해 탄생하는 다층적 예술세계의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작가 소개

프란체스코 클레멘테는 이탈리아 나폴리 출생으로 현재 미국 뉴욕과 뉴 멕시코, 인도에서 거주 및 활동중이다. 필라델피아 미술관 (1990), 영국 왕립미술원(1991), 파리 퐁피두센터(1994), 도쿄

세존미술관(1994),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1999), 나폴리 국립 고고학 박물관 (2002), 아일랜드 현대미술관(2004) 나폴리 돈나레지나 현대미술관(MADRE) (2009), 프랑크푸르트 슈른 쿤스트할레 (2011), 뉴욕 루빈미술관(2014)을 포함한 세계 유수 미술관에서 작가의 회고전이 열린바 있으며, 최근 매사추세츠 현대미술관 (2015), 베이징 스프링스 아트센터 (2016),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2018), 미국 코네티컷주 브랜트재단, 댈러스 컨템포러리(Dallas Contemporary) (2019) 에서 개인전을 선보였다. 2020년 6월 비엔나 알베르티나에서 개인전 <자화상과 사이렌 Self-Portraits and Sirens>, 2020년 9월 모스크바 현대미술관에서 개인전이 열릴 예정이다.

레비고비 (Lévy Gorvy) 소개

도미니크 레비(Dominique Lévy)와 브렛 고비(Brett Gorvy)에 의해 설립된 레비고비는 근현대와 동시대 미술을 중심으로 최고의 전문성과 혁신을 기반으로 한 전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생존 작가는 물론 작가재단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다채로운 전시 프로그램과 다양한 예술 장르 간의 폭넓은 교류를 시도하는 레비고비는 미술사 관련 연구와 학술 활동, 도록 및 전시 관련 서적 출간 또한 활발히 지원하고 있다. 현재 뉴욕 매디슨가 909번지, 런던 메이페어와 홍콩 센트럴에 위치한 세 곳의 전시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위스 취리히 사무소인 레비고비 럼블러(Lévy Gorvy with Rumbler)를 통해 전 세계 개인 컬렉터 및 미술기관에 맞춘 프라이빗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레비고비 뉴욕 909 Madison Avenue, New York, NY 10021, +1 212 772 2004

레비고비 런던 22 Old Bond Street, London W1S 4PY, +44 (0) 203 696 5910

레비고비 홍콩 Ground Floor, 2 Ice House Street, Central, Hong Kong, +852 2613 9568

레비고비 취리히 Kirchgasse 50, 8001 Zürich, +41 44 260 44 00

www.levygorvy.com | @levygorvy

홍보 담당자

Marta de Movellan, Lévy Gorvy, marta@levygorvy.com

Sam Talbot, sam@sam-talbot.com

이미지:

프란체스코 클레멘테 <지리학 드로잉, 북부 Drawings for Geography, North> 1990 년대. 종이에 파스텔, 64.1 x 61 cm. 작가 소장, 뉴욕. 프란체스코 클레멘테 스튜디오 제공. 사진: Tom Powel Imaging.

프란체스코 클레멘테 <흰색, 빨간색, 검은색의 자화상 II SELF-Portrait in White, Red and Black II> 2008. 종이에 파스텔, 102 x 66.5 cm. 작가 소장, 뉴욕. 프란체스코 클레멘테 스튜디오 제공. 사진: Tom Powel Imaging.

프란체스코 클레멘테 <무제 Untitled> 1994. 종이에 파스텔, 67 x 48.3 cm. 작가 소장, 뉴욕. 프란체스코 클레멘테 스튜디오 제공. 사진: Tom Powel Imaging.